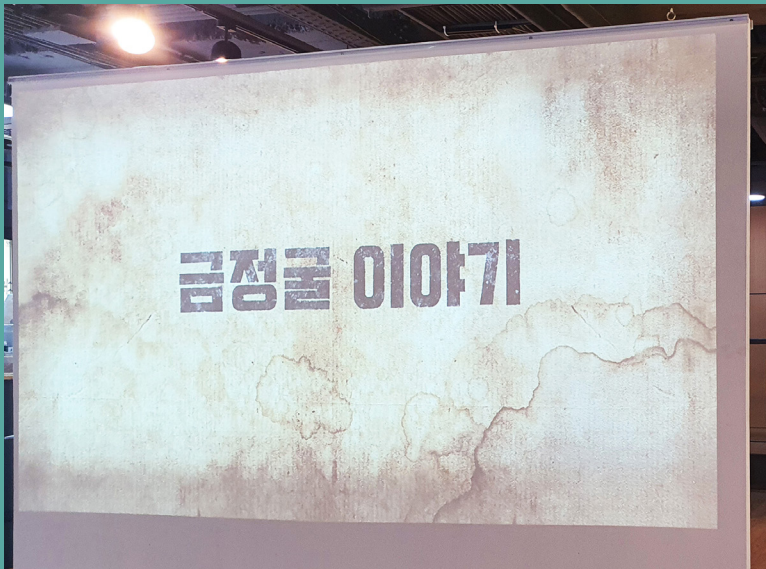


TIME NOW

다섯 번째





2020년 8~9월, 전태일기념관 시민공모전 <평화를 준수하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승일 작가의 <금정굴 이야기> 작품. 해당 작품은 2022년,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선정되어 상영 일정까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영 취소 통보를 받게 되었다. 작품의 내용은 6.25 이후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곧 당시 정부와 사회적 한계를 보여준다.

표지 / 왼쪽 이미지 :
<금정굴 이야기> 전시 장면
(전태일기념관 제공)

뒷면 이미지: 전승일 작가 SNS 발췌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aedlab

TIME NOW

이번 9월달은 편집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말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신 필진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너무나도 큼니다. 이안 필진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접수 후 이에 따라 부적(물론 이 명칭은 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들어줄 것 같은 심볼이라 생각해도 좋겠지요.)을 제작해주는 것인데, 어느정도 쌓은 후 피그헤드랩에서 전시의 방식으로 표현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달에는 저를 포함해 몇몇 필진분들이 다소 시간에 쫓기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쨌면 9월, 10월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 시기라고 하나 봅니다.

※ 피드백을 통해, 이번 달부터 글자 폰트를 나눔고딕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석민정
삼십대/
문화예술인/
교습소운영

2011년 년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보았니.

근 십년 잡지 않았던 필름카메라가 생각난 건 제주도여행 때문이었다.
별 감흥 없이 수 십 번 터치해 찍어내는 디지털 이미지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 내 아이폰 속 이만개의 사진들.
불현 듯 떠오른 사진동아리의 기억.

흑백사진에 빠져 출사를 다니고 암실에서 밤을 샌 낭만을 아는 대딩이 있었다.
피사체와 나 사이의 멜랑콜리함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중2병을 뒤늦게 맞이한 대딩
이 있었다.





온갖 잡동사니 속 인화되지 않은 필름 하나.
언제 찍은 필름이더라...
나중에 인화해야지. 하며
세 네 번의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려지지 않고 잘도 따라다닌다.
제주도 필름들과 함께 인화해보기로 한다.
아무것도 안나오면 어찌지...
인화비 날리는거지 뭐..
떨리는 마음으로 스캔 파일을 열었다.

십여년 전 21살 겨울. 혼자 떠난 부산

꽃을 단 빗자루





겨울바다에 혼자 갔었나보다.

연인이 부럽기도 했었나보다...





여행지에서 항상 들리는 절





2011년 년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보았니.

(가칭) 부적 프로젝트



이 안

원형아티스트 /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만신

※ 2022년 9월호부터 이안 필진의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매달 사연을 받고 그 사연에 대해, 이안 필진이 만신으로서 답변과 이에 따른 부적을 제작해 드립니다. 종교 혹은 신앙의 측면에서 부적이란 것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작업은 이안 필진의 전통 계승 및 독자적인 해석 차원으로 창작의 측면이 강하며 또한 받아들이는 분들께서도 이것을 부적은 물론 자신의 소망을 위한 심볼, 도상, 기하학적인 무늬, 작품 등 상징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안 필진은 만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본 작업의 내용물 역시 이안 필진이 실제로 자신의 일에 함께 하던 것으로서, 좀더 보편적이고 열린 차원에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고 공감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3명 내외, 익명으로 된 사연을 피그헤드랩에서 취합 후 이안 필진에게 보내는 방식이며 본 과정을 통해 제작된 부적들은 먼저 이미지로 사연자에게 전달되고 이후 취합하여 전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시 종료 후 부적들은 사연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A씨 / 199X년 X월 XX일 XX시 XX분생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탓에 기어코 학교를 자퇴하고 새로이 창업하는 사람입니다. 한 전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제 성향과 경험을 포용해 줄 기관이 없는 것 같아, 저만의 업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응원의 부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꺠 (。ω。)つ—☆~*

만신으로의 답변

맞지 않는 티셔츠를 입어 보겠다고, 꺼는데, 안들어가져. 나 예전에 잘 맞았는데 말도 안돼.

한때는 그래도 잘 맞는 옷이었는데 사이즈는 작은것도 누진 것도 아닌데, 티셔츠 너도 한세월 지났다고 날 배반 한건지, 아님 내가 스타일이 바뀐건지. 이렇게 몇년을 고민을 한 옷만 몇개야. 도대체가.

결국 어느 날 내 옷장에는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겨울이불 3채는 보란듯 입지도 않는 옷을 발견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의뢰분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선생님께 진한 동감과 찬사를, 저 부작에 제 마음 담아 열렬히 인민동지 연기하는 배우처럼요.

우선, 내가 나와 내 주변인들이 달라진 그 변화를 받아 들이고 당신 삶과 주변을 다시한 번 퍼즐 처럼 맞추어 보았고 그렇게 새로운 무안한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 내는 그 힘에 이 부작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부작은 처음 일의 시작에 겪어야 할 제장문제, 시행착오, 타인과의 구설과 돈을 많이 벌게.해달라는 것 보다 발란스 있게 벌게 해달라는 전제로 썼어요.

중앙에 있는 부작은 바로 선생님의 사업을 시스템의 설계도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 곳에 돈 사람 아이디어 등등을 배치해보세요. 안정적인.발전을 즐겨요!

이불짝 안만드니 집은 곧 커지겠는데요?



2.

B씨 / 199X년 X월 X일 XX시경

어릴때부터 그랬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커다란 앵두나무를 몇 시간이나 흔들어 그 맛도 없는 짧은 앵두를 집에 한포대 들고 가야 속이 시원했다.
뭐든지 그랬다. 두 손에 쥐어지지 않을만큼 가득 집어내고도 더 집지 못해 눈물이 나는 그런애였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상했다.
이유모를 불안감, 긴장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더 가지지 못해 불쌍했고, 더 나아가지 못해 불행했다.

타고난 욕심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욕심의 결과는 항상 또다른 결핍으로 나 자신을 괴롭힐 뿐이었다.
미니멀리스트도 하고싶고 맥시멀리스트도 하고싶다.
나는 그래서 매일이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다.
내일은 '더 해야한다'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의 굴레에 갇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읊조리고 있다.

욕심과 결핍, 외로움과 자기연민이 지배하고 있는,
매일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만신으로의 답변

잘 있니?
환각의 리사이클장에서 폐기되던
전생과 이생의 우리
그리고 미래의 오염된 희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낙엽이 된 우리
우리는 함께 철새들을 보냈네 죽음 어린
날개로 대륙을 횡단하던 여행자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든 것들에게
입맞춤을 하면 우리의 남은 몸에는
총살당한 입김만이 어렸네...

〈허수경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나의 가버린 현 창문에게- 중에서〉



3.

C씨 / (어머니) 620X0X X시

어머니 환갑입니다. 요즘이야 환갑이 대수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막상 때가 되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고 동생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비슷할 것이겠지만, 저희 부모님 역시 베이비붐 답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오다 보니 내 자식 내 가족은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었으면 했을 테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쉬는 날 없이 전전긍긍하신 덕분에 큰 걱정없이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어머니 삶의 목표가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안 어머니 생신 선물로 적당한 금액의 봉투를 준비하다가 문득 어릴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척 어렸을 때 어머니 생신이라고 무엇인가 사드렸더니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있다”며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의 선물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은 맞아서 지금 생각하면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거나 할 때면 매번 “쓸데없는 것에 또 돈을” 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돈을 벌게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돈 봉투를 드리는 것이 더 편했고, 어머니도 대체로 그것을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니 저는 그게 슬퍼져서 이제 어머니께 너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작은 것이라도 서로 선물하고 받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족에겐 없었다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집에 우여곡절은 많았고 여전히 어머니에게 삶에 어떤 목적이거나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그 세대의 보편적일 수 있는 모습이며, 또 가족의 안녕을 위한 마음인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더 이상 돈만이 아닌 또다른 삶의 재미와 보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지금의 어머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아들로서는 보통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신으로의 답변

우리 엄마야 아들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딱 한마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누군가에게 해 끼치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난 엄마, 이세상의 모든 걸 아들이 엄마에게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는게 엄마 말대로 녹록치 않나봐.

그래도 사랑하는 여사님.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사님의 꽃잎이자, 앞으로 더 쉽지 않을 이 세상의 모든걸 엄마에게 다 해줄 그 마음으로 아직 가슴 뜨겁게 타고르고 있다는 걸 잊지마 엄마. 사랑합니다 여사님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7월의 추억놀이

구글포토의 알림이 떴다.

1년전, 2년전, 10년전……사진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보여준다. 친절하고 일 잘한다. 이때쯤 나는 이랬구나…거기 갔었구나… 지난 사진들을 들추어 보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진은 다 과거다. 과거의 모습이 생소하고 신기하다. 옛 생각이 소환된다. 한참 추억놀이를 하게 된다.

7월과 8월의 구글포토 초이스로 많이 보이는 것은 아들의 생일사진이다. n년전 생일사진들이 정리되어 있다.

아들, 10x15cm, 종이에 수채, 2022



아들의 생일잔치 사진들 사이에서 배가 볼록한 여자가 1인용 쇼파에서 옆으로 쭈그려 자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물론 그 여자는 나다. 임신 마지막 달. 다리가 퉁퉁~부어 있다. 배가 딱딱하고 불뚱해서 터질 듯하다. 호러영화처럼 곧 저 배가 팍...악 터지고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다. 내가 이랬었나!? 내 모습에 내가 놀란다. 꿀꿀이맘, 산모님으로 불린 시절. 태교로 드라마는 '시크릿 가든' 예능은 '나는 가수다'를 봤었지. 7월은 아들의 생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내가 출산한 달이기도 하다.

다른 사진을 본다. 병실 침대에 나랑 아기가 누워 있다. 출산 후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아이를 영접한 순간이다. 조심스레 아기를 건들이고 있다.

그 날은 2011년 7월 27일.

엄마가 되었다.

아이는 건강히 잘 태어났고, 나도 별 문제없이 출산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주둥이. 내 눈에는!

예상대로 아들이다. 임신과 출산과정을 겪어보니 한번은 하지 두번은 못하겠다 싶었다. 첫 아이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안도가 되었다. 누가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머리들은 아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은은한 압박이 있었다. (2011년에는)

내 뱃속에서 나온 저 조그마한 생명체가 내 아이 이구나. 가만히 보면, 저 꼬물꼬물한 생명체가 내 뱃속에 살았었고, 밖으로 나온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별탈없이 임신이라는 임무를 수행했고, 무사히 출산을 완료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가 되었다. 이 상황에 대한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어색하다. 이런저런 걱정이 몰려왔다. 머리가 지끈했다.

다른 사진을 본다.

10년전에는 아들의 첫 생일 '돌' 이였다.

작지만 폭발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이. 온 사방을 정신없이 활쭉고 다닌다. 이 인간을 어찌 키운 건지... 스스로가 참 대단하다.

돌잔치 사진속의 나는 눈이 쾅하다. 여기서부터 노화가 가속화되지 않았을까 한다.

아들, 15x10cm, 종이에 수채, 2022



핸드폰을 내려놓고 추억놀이를 끝낸다.

엄마가 된 그후로 아이는 내 인생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아이로 오는 변화는 나의 선택이었고, 아이는 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다. 애초에 시작은 '나'였다.

얼마전 아이의 생일이 지나갔다. 추억이 한 겹 더 쌓인다.

아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고마워!

2011년 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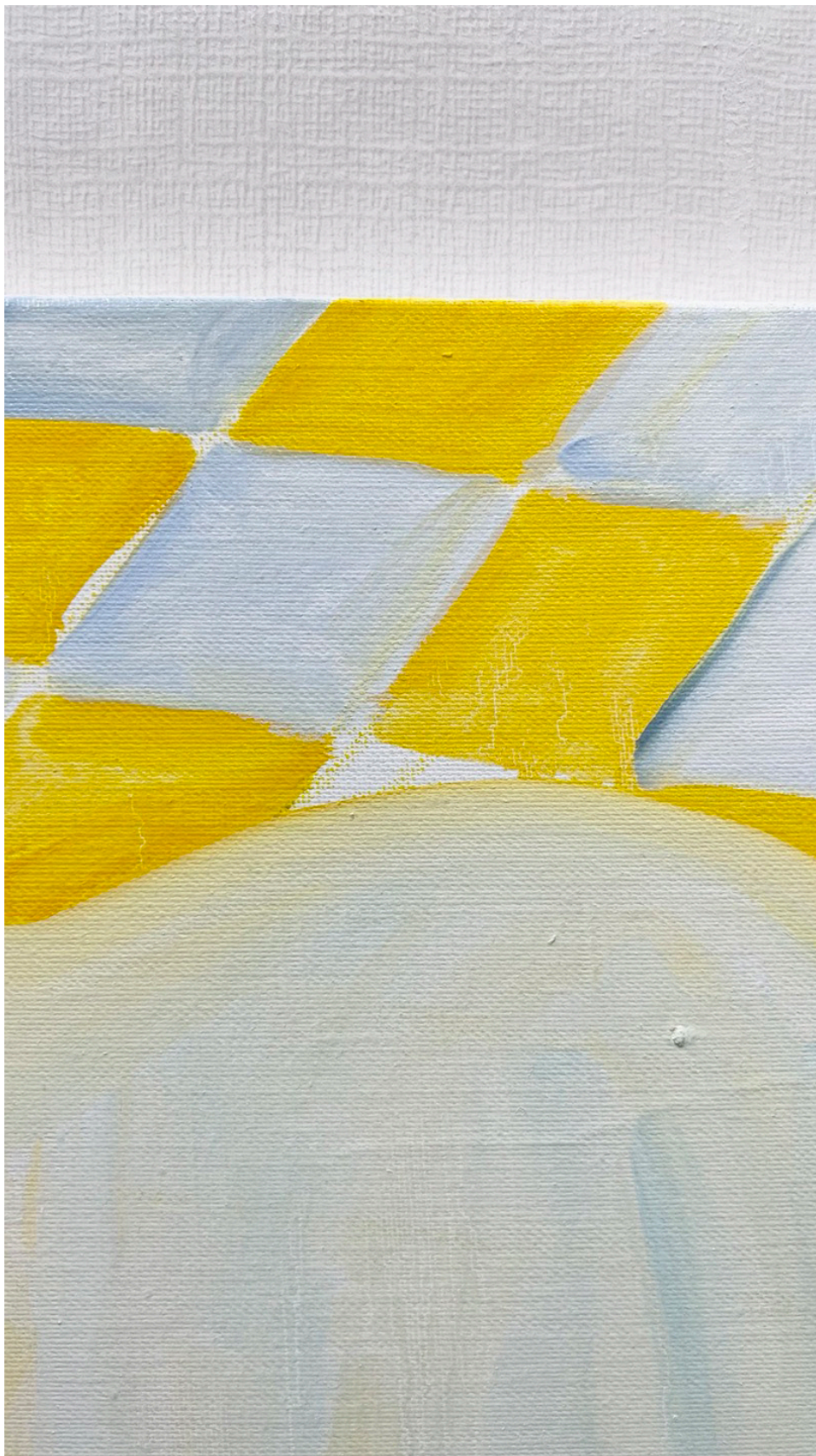
이 은 우
그림 그리는 사람 /
본업과 부업 사이 어딘가에
서 표류 중

내 마음은 뒤죽박죽

- 1 - 한창 수집했던 팔레트
- 2 -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색
- 3 - 노란 패턴
- 4 - 쳐다보기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이봐 젊은 친구. 프로가 되라구.

예전에, 그러니깐 내가 신진작가라는 정체성으로 이런저런 주변의 영향들을 받고 있던 10년 전. 임모 평론가가 쓴 ‘신진(청년?)작가이 알아야 할 리스트’같은 글을 보게 되었다. 당시의 그는 지금보다 평판도 좋고 괜찮은 이야기를 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그를 멋지게 보고 있었기에 글이 눈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다.(근래의 글도 미술연구자의 관점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짧은 글귀로 정리된 리스트를 읽으면서 오오오 하고 감탄을 하다 가도, 이제야 돌이켜보면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그 중에는 사실 어느 이상의 경지에 올라야만(혹은 더 뚝뚝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도 기승전결이 있는 활동을 해보고 나니 신진작가라는 정체성이 있었을 때 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 뭐 후회 같은 것이 필히 기반이 되는 그런 얘기들 말이다. 더욱이 피그헤드랩을 운영하게 되면서 나보다 더 젊은 작가들과 자주 교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것도, 또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보며 뭔가의 방법론 같은 것을 종종 느끼고는 한다.

아무튼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근래의 생각들을 묶어서 몇 개 이야기해보기로 하겠다. 그래 혹시나 이 글을 볼 수도 있는 작가 A, 당신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태반이니 너무나 섭섭하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잔소리 많이 한다고 진절머리 칠 텐데. 그래도 내가 평소 “이것 봐, 나는 실패한 예술가지 않나.” 말하는 것처럼(물론 어느정도는 빈말이다.) 한번 넘어져 본 놈이 아픈 줄 안다고 그럭저럭 아팠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 어떤 의미로는 내가 곧대가 되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1. 적어도 시각예술계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창작만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딱 두가지의 경우이다. 범인은 불가능하고 비범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은 이미 떡잎부터, 환경부터 달라서 범인들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는 한다. 만약 네가 작품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비교적 전통적인 마켓, 갤러리를 통해 판매하게 될 확률이 높다. 기본적으로 갤러리는 판매금액의 50%를 떼

떼어가고 당신은 나머지 50%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벌이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2022년, 최저 시급 한달에 약 180여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1년이면 약 2천여만원을 벌어야 하고, 그렇다면 갤러리 뭇까지 4천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4천만원이지, 막상 그림을 그리고 팔아본 사람들은 알지 않겠는가. 그림이라는 것이 상품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심지어 올해 전시를 통해 몇 점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지. 한 해 한 해. 매해 미술시장이 이러네 저러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상품 가치가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지속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금액은 사실 어느정도 수요층이 있는 작가(혹은 관찬은 갤러리)에게는 몇 점 팔면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수요가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며, 경기도 계속 나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의외로 팔리는 작가란 웬만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큼, 거의 평생에 가까이 기억될 정도가 아니면 그 수명은 너무나도 짧은 한철 장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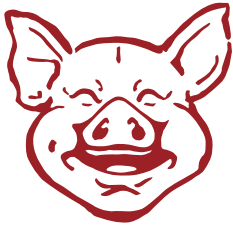
그래서 도달하는 것도, 그것을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근래처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메타버스, 마블 유니버스, 가습 이벤트 등)에 내 창작물, 내 브랜드가 언제까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이야 어쩌다 한 두 점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누군가에게 소유욕을 일으킬 정도의 메리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 “작업하면서 점차 창작의 방식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비교적 참신한 젊은 친구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와중에 몇몇 선배님들이 떠오르고 말았다. 그 중 한 분이 내게 해준 말씀이 기억나더라. 어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어서 축하한다고 했더니 “축하하긴 뭘, 이렇게 해서 젊은 작가들 기회 하나 뺏어 먹고 연명하는 거지.” 그분의 작업이 정말 그런 노력과 처절의 연속처럼 느껴 졌기에, 또 결국엔 늘 경쟁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브랜드와 커리어를 억지로라도 유지해야 하기에 지극히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더라.

2. 그래서 대부분의 이들이 알바를 통해 연명하려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 그리고 그 알바는 보통 자신이 하고 있는 특기의 연장이기 쉽다. 보통 미술학원 알바, 벽화 알바 같은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물론 충분히 나쁘지는 않다. 알바 뛰고 일 마치고 밤 늦게까지 작업하고 올빼미 족들은 그러다 해가 뜨면 자고... 조금은 낭만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 버티는 사람을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다. 아니 그런 사람이 없기 보다 대체로 많은 이들이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지치고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해야 할까. 설령 그렇게 버티더라도, 그 사람을 김작가 이작가 라고 부르더라도 창작을 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나는 이것은 ‘메인잡’, 자신의 ‘주직업’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가도 결국 사람이다. 나는 낭만이 있던 시기, 사람 위에 작가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먹고 살고 내 몸에 점점 노화가 오고, 가족이 새로 생기거나 아프고 어떤 힘듦이 몰아 닥치고 하면 결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드러나더라. 살면서 그런 위기가 없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 그런 위기가 닥쳐도 주변의 도

움으로 극복이 가능한 사람들(보통 환경이 좋은이라 표현하기도 하는)이 더욱더 작가로 살아남는 비율이 높은 것도 맞는 것 같다. 만약에 도움을 받을 환경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은 없어서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알바로 연명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사실 많이 말리고 싶다. 혹시 모르니 서브잡,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 두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실제로 나 때도 많이 그랬지만 근래에는 아예 미대를 들어갔다가 학예를 염두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애초에 예술이 판타지가 심해서 그렇지 외길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아는 것 같다. 혹여나 이러한 이들에게 작가되기 글렀다고 할 것이면, 이들이 삶의 비극에서 외통수를 맞고 휘청거릴 때 진짜 도와줄 사람만 말하라.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정말 가끔, “그렇게 작업하다가 정 안되면 확 죽으려구요” 라는 사람을 어쩌다 한번씩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사람을 보기도 했고. 그런 광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한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했는데 안되는 거면 뺏속까지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죽을 각오가 부족했던 것 둘 중 하나가 된다. 그러니 둘 다 허무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미리미리 큰 그림, 플랜 B를 생각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피그헤드랩
www.pigheadlab.
com

피그헤드랩 소식

지난 2022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피그헤드랩에서는 차유나 작가가 기획 및 제작하고 구동현, 이어린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한 <HUMANIZING> 전시 열렸습니다. 하단은 전시 사진 및 관련 글입니다.



<HUMANIZING>은 2022년 피그헤드랩의 터닝포인트 참여작가 차유나가 기획 및 제작하고 구동현, 이어린이 참여한 팀 프로젝트 전시입니다. 피그헤드랩의 터닝포인트는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이 창작과 함께 예술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크리틱 및 워크숍, 전시기획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시를 제작하게 됩니다. 본 전시는 2022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개관 시간 내 자율 이용이 가능합니다. 피그헤드랩은 언제나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합니다.

전시를 소개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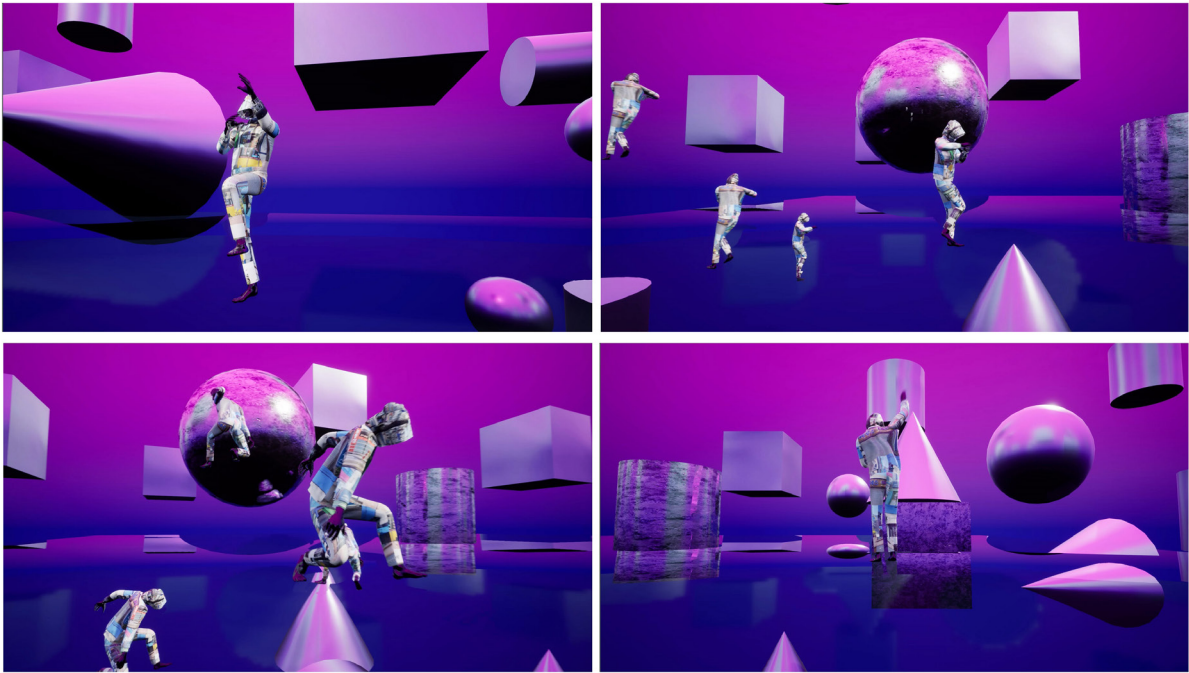
먼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차유나 작가는 올해 피그헤드랩에서 3개의 전시를 참여하였고 그것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그헤드랩이 차유나 작가를 편애하거나 단순히 전시 횟수를 늘리기 위함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그헤드랩은 늘 젊은 작가들이 개인전 횟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그헤드랩의 터닝포인트 프로그램 참여작가의 경우 워크숍 프로그램을 거치며 직접 기획 제작을 통한 개인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마저도 타 공간에서 개인전이 잡혀 있을 경우 굳이 무리하여 전시를 진행 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차유나 작가는 세 개의 전시,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이 시작하며 열린 오리엔테이션 전시, 지난달 김민우 작가와의 기획 전시, 그리고 이번 작가가 자체 기획한 전시를 진행하였다. 이 세 개의 전시에서 작가는 점점 포지션을 확장해 나간다. 여기서 굳이 '작가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공간의 게스트의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호스트가 되기까지, 작가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올 한해 피그헤드랩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보여준 것 뿐이다.

이번 전시 <HUMANIZING>(이하 이번 전시)의 경우 바로 지난 김민우 작가와의 협업 <달통 : connector>(이하 달통 전)의 연장선에 있다. 달통 전의 경우 도시와 간판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유나작가는 아주 기초적인 수집과 관찰을 보여주었다. 작가는 수많은 간판들을 직접 보고 촬영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나열하였다. 사실 달통 전이 제작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지점이었는데, 실제로 수집된 간판들이 골라쥬의 방식으로 벽 하나를 뒤덮었을 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그 이상의 이야기를 추론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딱 수집의 선에서 종료된 느낌이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는 듯 한 달의 시간이 지나니 그 수집들은 일종의 양분이 되었고 어떤 과실의 형태로 지금의 작업에서 농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수집과 관찰은 다음 과정을 위한 양분이 된다는 것을 작업을 하는 이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수집한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관찰된 것들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발전의 양상'은 내가 피그헤드랩의 운영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예시로 들고 싶은 정도, 마치 샘플처럼 참 매끈하게 잘 진행되었다.

작가가 수집 된 간판들의 기본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경쟁 도구로서의 심볼로의 역할이다. 그 심볼들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자 우리를 둘러싼 업데이트가 되면서 되면서, 스스로가 도시와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발언자가 되어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꿈틀거리며 존재감을 부각한다. 우리가 흔히 신장개업 앞 풍선 인형을 인간의 한 형태처럼 비유하듯이, 그러한 심볼과 효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경쟁하는 치열한 도시의 표상이 된다.

3D 모델링을 통해 캐릭터(정확히 말하면 얼굴 없는 캐릭터가 입은 옷)가 된 심볼, 그리고 심볼의 몸짓들은 EDM 음악과 함께 흥을 돋는 움직임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음악은 의외로 너무 무겁거나 심각하지 않게 캐릭터의 모션을 경쾌하고 발랄하게 연출해 낸다. 사실 준비 과정에서 음악 샘플들을 들으며 ‘이거 조금 가벼운 거 아닐까? 그래도 자본주의 경쟁 구도의 도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심각함과 격렬함을 내포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우였을 정도로, 오히려 이것이 일상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숙하게 반복되는 순환을 연출한다. 구동현 작곡가를 실제로 만나보니 차유나 작가와 비슷한 세대로서, 해당 세대에게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유추해볼 수 있었다. 캐릭터의 안무는 이어린 안무가가 연출하였는데, 메인 작품 동영상 옆에 모델링을 위한 연습 동영상이 같이 상영되고 있어 비교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제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미리 이야기 들은 바 있어 안무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 느낄 수 있었다. 홍보용 풍선 인형처럼 보이던 움직임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빠르고 격렬함이 섞여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거칠거나 격렬한 모습 등으로 변해간다. 또 벽에 부착된 모델링 및 전시 기획서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메인 영상 작업 외에도 이런 소스들의 공개가 나름 탄탄한 준비 과정과 쓸쓸한 재미를 전달한다고 본다. 메인 영상 작업의 집중으로 인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는 디테일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성과 완성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전시이고, 앞선 전시들을 지켜봤을 경우 매력적인 전시라고 자부한다. 물론 기획자로서 여전히 발견되는 작가의 아쉬운 지점들이 있기는 하여, 가령 차유나 작가의 경우 큰 스케일의 아이디어와 관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아쉬운 디테일과 완성도가 발목을 잡는 게 이번 전시에서도 보이기는 한다. 작가에게 늘 말해오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창작을 하였던 나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같은 것인데, 막상 작업을 하는 주체자로서는 엄청난 정신력과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기에 꼼꼼한 성격이 아니고선 천천히 줄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일 테다.

작가에게 듣기로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더욱 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기에, 이런 소소한 지점들은 얼마든지 메꿔져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작가의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은 그런 작은 아쉬움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으로 돌아가, 매 전시마다 새롭고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작가의 역량은 이미 피그헤드랩을 채우기 충분했으며, 전시를 보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느껴질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작가의 세계, 그 우주가 끊임없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 2022년 : ‘금정굴이야기’ 방송 부적합 의견 표명

- 심의위원 : 김현 실장, 김 민, 김혜영, 류현위, 손복희, 송선자, 유무영, 최혜경 위원
- 심의결과

프로그램명	2022 EIDF 단편화첩-금정굴 이야기	방송채널 및 방송시간	지상파 1TV 2022. 8. 28.(일) 22:50 ~ 23:15
제작	2022 EIDF 단편화첩 (전승일 감독)	심의일	2022. 8. 22.(월)
심의	<p>실 장 : 김 현 심의위원 : 김 민, 김혜영, 류현위, 손복희, 송선자, 유무영, 최혜경</p> <p>[심의 결과]</p> <p>심의·시청자실 특별합동심의 전체회의 결과, 상기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에 명시한 심의 기준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심의 결과를 전달합니다.</p> <p>[심의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에 따르면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프로그램은 시작하면서 ‘이 영화는 1950년 고양시 금정굴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실화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영상 구성이나 자막에 있어서 연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학살의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시청자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음. -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해석과 관점이 다양한 상황이므로 특히 그 어떤 지상파 TV 프로그램보다 방송심의규정에서 제시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 -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객관적 자료 제시나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 등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점이 있음. - 이성과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사유로 지상파TV로 방송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음.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기록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A4, 1~2페이지 내외 / 혹은 그 이상. 어차피 적당히 편집함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2. 09, 다섯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9월 참여 필진 : 석민정, 오종원, 이안, 이은우, 이채연

www.pigheadlab.com